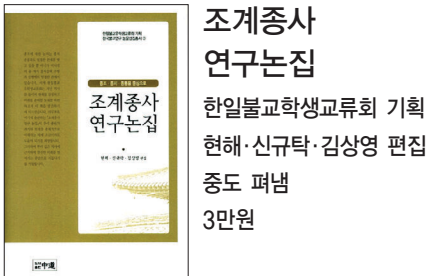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 ~ 1/21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붓다수업	법상	민족사
2	비율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7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키
3	알고 보면 관찰은	마가	불광출판사	8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4	달콤한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9	붓다 한 말씀	이미경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10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정만민 한국불교학자협회 David A. Mason	운주사



조계종 주제 논문 한 권에



한일불교학개요(상임대표 현대 스님)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종조에 관한 논문을 엄선했다. 『조계종사 연구논집』을 펴냈다.

현대 스님과 신규탁 연세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편집을 맡은 이 연구논집은 17편의 논문을 실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장에는 '조계종 성립사 및 법통설'과 관련한 연구논문 여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성립사와 관계된 연구이며, 일부는 조계종 법통과 관련한 연구논문이다.

제2장에는 '조계종 종조'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계종 종조 도의의 생애와 사상 등을 연구한 여섯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3장에는 '현대 조계종'과 관련한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조계종 성립사 및 법통설'과 관련한 내용 중 김영수 전 원광대 교수의 '조계종에 대하여'는 조계종사 연구의 효시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조계종의 종명과 종지를 나름대로 살펴본 이후, '각론'이라는 제목 아래 구산선문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각 산문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산선문의 틀 속에서 각 산문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학술 논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익진 전 동국대 교수의 '신라 하대의 선 전래'는 불교사상사적 관점에서 신라 하대 선종이 지니고 있는 제반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김영태 전 동국대 교수의 '구산선문 형성 과정에서의 고려 말 조계종 역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조계종명을 쓰게 된 시기와 그 이유를 밝히

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김영태 교수의 또 다른 논문 '조선 선가의 법통을 밝힘'은 태고법통설을 담고 있는 여러 문헌을 자세하게 살펴본 이후 그 문제점을 언급한 내용과 태고법통 확정의 역사적 연유를 살펴본 내용, 그리고 서산 스스로가 인식한 법통과 그의 가풍을 살펴보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의 '조선시대 선문법통설에 대한 고찰'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선불교 법통설의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논문이다.

허흥식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중세 조계종의 기원과 법통'은 '조계종의 기원과 종조', '법통에 관한 여러 견해', '태고와 내용의 계승자', '법통의 변천과 새로운 시론' 등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 '조계종 종조'와 관련한 내용 중 전 조계종 종정 한암 스님의 '해동조조에 대하여'는 비록 정식 학술 논문은 아니지

한일불교학개요 기획

조계종 종지·종조 주제 논문 17편

만, 이 글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록했는데, 이 글은 훗날 도의를 조계종 종조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김두진 전 국민대 교수의 '도의의 남종 선 도입과 그 사상'은 도의의 행적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며, 도의의 주석 도량인 진전사의 개창이라든가 남종선 도입 전란과 관계된 내용을 서술하였다.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도의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은 도의의 생애를 살펴본 이후, 도의의 선사상을 '무위임운(無爲任運)'의 관점에서 정리했으며, 아울러 도의의 수증론(修證論)을 상세하게 논구했다.

정동락 영남대 교수의 '원적 도의의 생애와 선사상'은 도의의 생애를 출가, 입당 유학, 귀국 후의 활동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도의의 생애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이 논문이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은 도의가 조계종의 종조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조영록 전 동국대 교수의 '도의의 재단 구비행정에 관한 연구'는 <조당집>에 전하는 도의의 입당 구비 여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 논문이다.

제3장 '현대 조계종'과 관련한 내용 중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조선불교조계종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는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의 성립 배경, 조계종의 종명과 종조, 종지와 종풍, 종단 구조 등을 검토하여 조계종의 출범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분석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변화와 종조·법통 인식'은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의 탄생을 한국불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였으며, 김영수, 권상로, 이재열 등이 적극 나섰던 이 시기 종조, 법통 논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중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김상영 교수의 또 다른 논문 '정화운동 시대의 종조 갈등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는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이른바 정화운동 시기의 종조 갈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비구 측-보조파, 대처 측-태고파'라는 표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한 때 비구 측이 내세우고자 했던 정화의 명분과 보조 지를 종조로 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했다.

김용태 동국대 HK교수의 '조계종 종통의 역사적 이해'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종명 변천과 종조와 관련된 제반 논의, 조계종의 종지에 대해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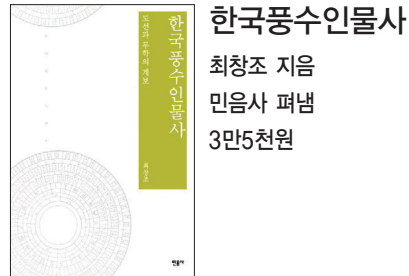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한암 선사의 승가 오직과 조계종의 신행'은 근현대 조계종의 정체성에 주목한 논문으로, 특히 한암 중원 선사의 불교관을 중심으로 작금의 조계종 현실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을 편집한 신규탁 교수는 "이 책에 수록된 17편의 논문은 편집자들의 임의성에 의해 선별된 것이며, 결코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면서 "책에 실린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향후 올바른 조계종사 인식에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자

완전한 땅은 없다

(명당)



"풍수 이론은 명당의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한다. 그러나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당과 나의 명당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지리관(地理觀)이 있다. 책은 우리의 지리관인 '풍수'의 맥을 짚어주는 책이다. 그동안 새로운 풍수를 주창하며 한국 풍수사를 다시 써 온 저자가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자생 풍수의 역사를 다시 짚어준다. 역사 기록에 최초로 등장한 탈해왕과 선덕여왕에서부터 자생 풍수의 비조인 도선 국사와 조선 건국의 주역 무학 대사, 그리고 동학 삼걸과 실학자들이 이르기까지, 저자는 이들을 통해 우리 풍수에는 뒷자리 잡기에 연연하는 음택풍수만이 아닌, 치유와 비보(禱補)로서의 자생 풍수가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밝힌다. 그간 신비로운 비학(秘學) 혹은 이기적인 술법으로만 오해되어 온 풍수, 하지만 우리의 전통 풍수는 땅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사람의 지리학'이자 환경과 소통하려는 고유의 과학이었음을 시료와 답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풍수는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인가. 뒷자리를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은 우리의 사상인가. 책은 동기감응설이 동진시대의 인물인 관박의 <금낭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복(發福)만을 기원하는 이기적인 술법 풍수, 음택풍수(陰宅風水)가 풍수의 전부이자 우리 고유의 사상이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덕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술법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풍수를 수천 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해 온 고유의 방식으로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출간 취지다.

책은 신라시대 무렵 당나라를 통해 들어



자생풍수의 비조 도선 국사



조선 건국의 주역 무학 대사

자생풍수의 비조 도선 등 인물 통해 우리의 지리관 '풍수'의 맥 조망

발복의 '음택풍수' 아닌 치유와 비보 자연 대하는 우리 고유 방식, 과학 '좋은 땅 찾기' 아닌 '좋은 땅 만들기' 타 지리관과 다른 우리의 세계관

은 중국 풍수가 우리 풍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음택풍수가 아닌 우리 고유의 '자생 풍수' 가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자생 풍수는 대동적(大同的) 풍수라고 말한다.

자생 풍수의 초기 흔적은 석탈해가 초승달 모양의 집터를 기반으로 빼앗은 일이나, 선덕여왕이 여근곡에 숨어 있던 백제 군사들을 알아맞힌 얘기 등이 실려 있는 삼국유사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자생 풍수는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지리산에서 어떤 이인(異人)을 만나 풍수를 배우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도선의 자생 풍수는 바로 비보(禱補)-모자라는 것을 도와서 채움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중궁의 풍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좋은 땅 찾기'의 풍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고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의 풍수로, 이기적인 음택풍수가 아닌 조화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양택풍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의 지리학'임을 밝힌다. 이러한 현실성은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도선의 풍수는 고려까지 이어져 각종 국역(國域) 비보 풍수를 낳고, 묘정 등에 의해 개혁 사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 건국의 주역인 무학대사에 이르러 현실 정치로 표현되었으며, 광화문 앞 해지나 송래문의 세로쓰기 현판 등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비록 유교를 숭상한 조선의 기록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무학의 풍수 정신은 다시 최효원, 홍경애와 전봉준 등의 동학살결로까지 이어진다. 책은 이처럼 인간 중심의 현실성과 땅에 대한 사랑이 만나는 곳에 언제나 자생 풍수의 정신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는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발달한 지리관과는 다른, 온전히 이 땅에서 발원하고 살아온 우리가 발전시킨 고유한 세계관을 역설한다.

그럼 왜 지금 또 다시 풍수인가.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땅이 어머니의 품속이라면, 병든 곳은 고치고 가꾸어 가면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책은 풍수가 맹목적인 자연 보존 주장이나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서양의 환경 결정론을 바로잡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지적한다. 자생 풍수는 '완전한 땅은 없다.'는 명징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상생 조화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데 그 미덕이 있다.

이제 우리 풍수는 촌로들의 뒷자리 잡기 술법에서 벗어나, 현대 지리학의 카테나(catena, 토양의 공간 연관성) 개념을 몇 백 년 전에 선취한 고유의 지리학이자 여러 학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문학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중국식 풍수가 아닌 우리만의 '자생 풍수'는 그 특수함 속에 인간과 자연에 관한 보편적 진리를 담은 독특한 사고 체계이다. 책은 자생 풍수의 현대적 적용의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출간됐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범거량 해설
한국 불교의 흥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만공·해월·한암·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wert고 선지식 총서 1**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면 | 218쪽 | 11,000원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wert고 선지식 총서 2**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면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wert고 선지식 총서 3**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엮음 | 46면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を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wert고 선지식 총서 4**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면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

특이점 실용선안 제 28054호

옥외춧불대

불경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재질
50개꽃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리스
100개꽃이	150cm	90cm	150cm	플러카보네이트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영금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향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힘찬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4